

【논 문】

## 明 東進 이전 고려의 遼東 정책\*

고 명 수\*\*

### 차례

- I. 머리말
- II. 元末明初 요동의 형세
- III. 요동에 대한 고려의 군사활동
- IV. 고려와 요동 몽골 세력 간 교류
- V. 맺음말

### 국문초록

14세기 중엽 홍건군이 봉기하고 요동으로 진입하여 각지를 점령했다. 그들은 두 차례 고려를 침공했으나 실패하여 수많은 병력을 상실하고 몽골군에게 진압되었다. 그 후 요동에 홍건군 진압에 공을 세운 여러 몽골의 제왕·무장·관료가 각자 세력권을 형성하고 할거했다. 몽골이 쇠퇴하자, 공민왕은 반원정책을 단행하면서 서북면으로 8참을 공파하여 몽골과 연계를 끊고, 동북면으로 쌍성총관부를 점령하여 구도를 회복했다. 나아가 두 차례 동녕부를 정벌하여 기사인테무르의 위협을 제거하고 변방의 안정을 확보했다. 1368년 명이 중원을 장악하고 요동으로 진출하려 시도하자, 여러 몽골의 자립 세력이 방어 역량을 강화하고 명을 협공하기 위해 고려와 동맹하려 했다. 고려도 명의 동진을 견제하고 요동에서 세 세력 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 모두와 우호적으로 교류했다.

주제어: 고려, 몽골, 요동, 명, 쌍성총관부, 동녕부

\* 이 연구는 충남대학교(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에 의해 지원되었음.

\*\* 충남대학교 부교수.

## I. 머리말

오늘날 滿洲 또는 中國東北이라 불리는 遼東은 전근대 동아시아 역사 변동에서 중대한 역할을 담당했던 지역이다. 그곳은 高句麗, 北魏, 渤海, 거란(遼), 金, 淸 등 강대국의 발원지였고, 화북·몽골·한반도의 사이에 놓인 지정학적 위치도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향배를 좌우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했다. 그러므로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나라·민족이 흥기하여 대외정벌에 나설 때마다 요동은 우선적인 공략대상이 되었고, 주변국도 그곳에 대한 영향력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그 공세에 적극 대응했다. 그 결과 요동에서는 항시 내부·주변의 제 세력 간 치열한 각축이 벌어졌다.

元·명이 교체되는 14세기 후반의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다. 14세기 중엽 정쟁과 내란으로 인해 몽골이 급속히 쇠퇴하여 요동에 대한 통제력이 이완되자, 그곳에서 여러 몽골 제왕·무장·관료와 토착 부족이 각자 세력권을 형성하고 자립했다. 1368년 몽골이 초원으로 퇴각한 후에도 그들은 北元과 연계하면서 명의 요동 진출에 대항했다. 명도 북원을 제압하고 동아시아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반드시 그들을 평정하고 요동을 확고히 장악할 필요가 있었다. 이 같은 정황은 14세기 후반 동아시아 국제정세 향배를 결정하는 변수로서 요동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역대 한반도 왕조는 국경이 요동과 인접하여 그곳에서 중대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때로는 안보 수호와 영토 확대를 위해 요동의 정세에 적극 개입하거나 군대를 일으켜 선제적으로 그곳을 정벌하기도 했다. 14세기 후반 격동기에도 고려는 요동의 형세가 고려의 명운과 직결된다고 인식하여 항시 이를 엄중히 살피고 능동적으로 군사·외교정책을 펼쳤을 것이다. 따라서 그 시기 요동을 둘러싼 동아시아 국제정세와 고려의 대외정책을 충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동에 대한 고려의 군사·외교정책의 내용·성과·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4세기 후반 요동의 형세에 관해 국내외 적잖은 연구성과가 발표되었으나 대

체로 1371년 명의 요동 진출 이후 시기에 집중되어 있다.<sup>1)</sup> 고려의 요동 정책에 관한 연구는 주로 군사적 측면에 편중되어 공민왕대 雙城總管府, 東寧府 정벌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sup>2)</sup> 특히 고려가 홍건군의 봉기 후 요동에 할거한 여러 군벌 세력에 대해 펼친 외교정책과 성과를 살피고, 이를 요동 정책 전반의 맥락에서 고찰한 성과물은 거의 없다. 그러나 『高麗史』 등에 비록 단편적이지만 관련 기사가 존재하므로 이를 빠짐없이 수집하고 요동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제정세와 관련 지어 면밀하게 검토하면 고려의 요동 정책의 전체상을 어렵잖이나마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 명이 요동에 진출하기 전 요동에 대한 고려의 군사 활동을 종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정리하고, 동아시아 국제관계 속에서 요동 제 세력에 대한 고려의 외교정책을 고찰하여 고려의 요동 정책을 총체적으로 조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그것이 요동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정세 변동에서 갖는 의미를 포착하고, 고려의 능동적 군사·외교역량과 성과를 드러내며, 14세기 후반 역사적 전환기에 요동이 갖는 지정학적 중요성을 환기할 수 있을 것이다.

## II. 元末明初 요동의 형세

13세기 초 건국 직후 몽골은 요동으로 진출하여 金の 무장과 토착 부족을 흡수하면서 점령지를 확대했다. 그 시기 東道諸王, 五投下 같은 몽골의 유력 제왕·무

---

1) 명의 東進 이전 요동에 형세에 관한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叢佩遠, 1998, 『中國東北史(第三卷)』(佟冬 主編), 吉林文史出版社; 薛磊, 2012, 『元代東北統治研究』, 社會科學文獻出版社; 欒凡, 2019, 『北元史』(邢正 主編), 中國社會科學出版社; 張士尊, 「元末紅巾軍遼東活動考」, 1996.2, 『吉林師範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杜洪濤, 2016.1, 「元明之際遼東的豪強集團與社會變遷」, 『史林』.

2) 박돈, 1985, 「高麗末 東寧府征伐에 대하여」, 『중앙사론』 4; 오기승, 2012, 「공민왕대 동녕부 전역(戰役) 고찰」, 『군사연구』 134; 오기승, 2014, 「高麗末 東寧府의 形態 變遷과 高麗 流移民」, 『역사민속학』 46; 이규철, 2016, 「공민왕대 대외정벌 정책의 추진과 시행」, 『역사와 실학』 59; 신안식, 2016, 「고려후기의 영토분쟁: 쌍성총관부와 동녕부를 중심으로」, 『軍史』 99; 오기승, 2021, 「공민왕 5년(1356) 여원 집경시대 분쟁과 쌍성총관부 수복」, 『승실사학』 46.

장 세력이 요동 곳곳에 세력권을 형성하여,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강하게 미치지 못했다. 마침내 1287년 몽골 정부가 동도제왕 나안(乃顔)의 반란을 진압하고 遼陽行省을 설치함으로써 요동에 대한 통치체제를 확립했다. 그러나 14세기에 이르러 카안위를 둘러싼 지배층의 권력투쟁이 심화하고, 정치가 부패하며, 재정이 궁핍해지자, 그 여파가 요동에 미쳤다. 요양행성 관원과 유력자가 농민과 토착 부족에 대한 수탈을 강화했다. 게다가 빈번하게 기근과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많은 주민이 굶어 죽거나 유랑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에 14세기 중엽부터 각지에서 몽골의 착취와 통제에 저항하는 반란이 일어났다. 1343년 遼陽의 忸者野人이 반란을 일으키고, 1346년에도 요양에서 忸者野人과 水達達이 봉기했다. 요양행성의 병력으로 이에 대처하지 못해, 결국 중앙정부가 대규모 토벌군을 파견해 가까스로 진압했다. 또한 1348년 여진인 鎖火奴와 兀顏撥魯歡이 스스로 大金의 자손이라 칭하고 차례로 반란을 일으켰다. 규모가 크지 않아 모두 조기 진압되었으나, 이후에도 요동 전역에서 크고 작은 반란이 계속 발생했다.

1351년 淮水 중류에서 홍건군이 봉기하고 순식간에 세력을 확대하여 거대한 반란집단을 형성했다. 1357년 홍건군은 몽골을 타도하기 위해 군대를 동·중·서로 나누어 북벌을 단행했다. 그중 關先生, 破頭潘, 沙劉二가 이끄는 중로군이 山西·河北을 거쳐 다음해(1358) 上都를 점령하고 全寧·大寧을 격파하여 遼西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때 이미 동·서로군은 몽골군에게 패하여 뿔뿔이 흩어졌다. 그 결과 중로군은 그들과 연계가 단절되어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였다. 이에 1359년 몽골의 영향력이 비교적 약한 요동으로 진입하여 요양행성의 치소인 懿州를 함락하고 요동 공략의 거점으로 삼았다. 그 후 사방으로 진격하여 북쪽으로 上京會寧府를 탈취하고, 동쪽으로 고려에 진입하고, 남쪽으로 金州·復州를 점령하고, 서쪽으로 永平을 차지했다. 이로써 요동 진입 후 약 2년 만에 요동 남부 대부분을 석권했다. 이에 몽골은 좌승상 太平의 아들 에센쿠투(也先忽都, 樞密院使 佛家奴, 國王 낭가타이(囊加歹)로 하여금 차례로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진압하게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당대 저명한 문인 危素는 홍건군의 침입으로 인한 요동의 혼란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도적이 河南에서 일어났는데 그곳 군사들이 훈련을 받지 못해 동북의 모든 군사를 투입했다. 비록 군사가 모였으나 장수는 명령에 따르지 않고 독단으로 그 위력을 약화하고 백성을 힘들게 했다. 도적이 開平에서 동쪽으로 가서 모조리 불태우고 약탈하니 그 난폭한 기세가 극심했다. 만약 먼저 계책을 내어 行省과 諸王을 다스리고, 군사를 훈련하고, 관문을 굳게 지키고, 농·상업을 진흥하여 東土를 안정시켰다면, 어찌 재앙이 이곳에 미치겠는가!<sup>3)</sup>

요동에 진입한 홍건군은 고려를 제압하여 함께 몽골에 대항하는 것을 주요 전략으로 삼았다. 이에 1359년 毛居敬이 이끄는 4만의 홍건군이 고려에 침입하여 여러 성을 파괴하고 西京을 함락했다. 그러나 고려군의 강한 반격을 받아 곧바로 퇴각했다. 그 후 1361년 관선생, 파두반, 사류이가 홍건군 주력 20만을 이끌고 재차 고려를 침공했다. 그들은 파죽지세로 남하하여 순식간에 開京을 점령했다. 이에 공민왕과 고려 조정은 福州(안동)로 피난했다. 그러나 홍건군은 곳곳에서 무자비하게 약탈·살육을 자행하여 고려 백성의 강한 저항을 야기했다. 다음해(1362) 고려는 각지에서 징집한 20만 대군으로 반격을 개시하여 홍건군을 효과적으로 공략했다. 그 과정에서 관선생, 사류이를 전사시키고 적군의 절반 이상을 살상했다. 결국 파두반이 잔여 부중 10여 만을 이끌고 요동으로 퇴각했다. 이처럼 홍건군의 두 차례 고려 침입은 막대한 손실을 입고 참담하게 실패했다. 이는 그들이 요동에서 몽골군에게 최종 진압되는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요동으로 퇴각한 홍건군의 군사력은 고려 침입 전에 비해 현저히 약화했다. 반면 요동에는 그들을 토벌하기 위한 몽골군이 속속 집결했다. 太平路 萬戶 나하추(納哈出)는 遼河 이북에서 홍건군을 일소하고, 遼陽行省 同知 高家奴는 고려에서 퇴각한 홍건군 잔당을 습격하여 4천이 넘는 수급을 베고, 수장 파두반을 생포해 京師로 압송했다. 또한 이수(也速)가 인솔하는 몽골군이 大寧·永平을 탈환하여 요서 전역을 회복하고, 1363년 상도에서 볼로드테무르(孛羅帖木兒)의 몽골군이 홍건군을 궤멸시켰다. 이로써 1358년부터 1363년까지 5년여간 요동·요서를 뒤흔든

3) 『危學士全集』 卷5 送札刺爾國王詩序.

홍건군의 반란이 최종 진압되었다. 그러나 그 충격은 요동에 대한 몽골 정부의 통제력을 크게 위축시켰다. 홍건군에 의해 철저히 파괴된 요동의 통치기구, 행정 체계는 쉽게 회복되지 못했다. 이에 요양행성의 기구·관료가 뿔뿔이 흩어져 각지에서 세력권을 형성하고 상호 투쟁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1368년 명의 북벌군이 大都를 압박하자 카안 토곤테무르(妥懽帖木兒)는 상도로 도주했다. 다음 해(1369) 명군이 상도를 공격하자 토곤테무르는 거둬 북쪽으로 도주하고, 다음 해(1370) 應昌에서 사망했다. 그 후 태자 아유시리다라(愛猷識里達臘)가 카안위를 계승하고 카라코룸에 입성하여 중원을 차지한 명과 남북으로 대치했다. 사서에서 이를 北元이라 칭한다. 명은 몽골을 초원으로 격퇴했으나 북원의 남하를 방어하고 중원에서 몽골의 잔당을 소탕하지 못했으므로 곧바로 요동으로 진출하기 어려웠다. 당시 요동에는 홍건군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크게 성장한 몽골의 여러 제왕·무장·관료가 각지에서 자립해 있었다. 그들은 북원 조정과 연계하면서 명의 요동 진입을 견제하고 상호 협력 또는 충돌하면서 자신의 세력을 확대하는데 주력했다. 명 중기 편찬된 『遼東志』에 당시 요동의 형세가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우리 太祖께서 즉위하시어 군웅을 토벌하고 사방을 평정하며 대군으로 幽·冀를 점령했다. 그때 元 승상 이수(也速)가 잔병을 이끌고 大寧에 은거하고, 遼陽行省 승상 에센부카(也先不花)가 開原에 군사를 주둔시켰다. 洪保保가 遼陽에 웅거하고, 왕 카라부카(王哈剌不花)가 復州에서 민병을 조직했다. 劉益이 得利羸城에 주둔하고, 高家奴가 平頂山에 군사를 집결했다. 각자 부중을 두었는데 많게는 만여 명, 적게는 수천이며 서로 할거하고 예측되지 않았다.<sup>4)</sup>

요동반도에는 遼陽行省 平章 劉益이 주둔했다. 그는 몽골이 초원으로 패퇴한 후 蓋州의 得利羸城에 주재하면서 요동반도의 서남단 金州·復州를 방어했다. 그곳은 명군이 해로를 통해 요동으로 진입할 수 있는 지리적 요충지였으므로 그의

4) 『遼東志』 卷8 雜志.

방어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 요양에는 행정 평장 고가노가 주둔했다. 그는 요동의 최전선인 요양과 그 주변 지역을 방어하면서 명군과 대치했다. 요동 북부에는 무칼리(木華黎)의 후예 에센부카(也先不花)가 홍건군 토벌에 공을 세운 후 행정 좌승상에 임명되어 강대한 세력을 형성했다. 또 다른 무칼리의 후예 나하추는 홍건군 토벌에 큰 공을 세우고 20만 병력을 이끌면서 요동의 최대 세력으로 존재했다. 그는 토곤테무르가 패주할 때 그를 찾아가 알현하고, 이후 활발한 군사활동을 벌여 遼·瀋지역과 요동반도를 장악하고 여러 번 명군을 공격해 큰 타격을 입혔다. 따라서 그는 명군이 요동으로 진입할 때 타도해야 할 최대 장애가 되었다. 요동 동부에는 奇皇后의 일족인 기사인테무르(奇賽因帖木兒)가 주둔했다. 그는 토곤테무르가 북상할 때 행궁으로 찾아가 알현하고, 이후 遼陽城과 兀刺山城(五女山城)을 기지로 삼아 압록강 유역을 공략하면서 군사활동을 벌였다.

### III. 요동에 대한 고려의 군사활동

건국 직후 몽골은 화북을 정벌하면서 동시에 그 배후지역인 요동을 공략했다. 이에 요동은 금의 통제력이 약화하고 여러 자립 세력이 할거·이동·충돌하면서 급속히 혼란해졌다. 그때 몽골, 東晉(東夏) 그리고 토착 여진 부족이 요동을 거점으로 삼아 고려를 침략했다. 요동에서 가해지는 외적의 공세는 13세기 말 카단(哈丹)의 침입 때까지 단속적으로 진행되었다. 1287년 몽골은 나얀의 반란을 진압하고 요양행성을 설치하여 요동 전역을 중앙정부의 행정체계로 편입시켰다. 이후 장기간 요양행성은 고려와 유일하게 국경을 접하는 몽골의 행정구역으로 존재했다. 그러나 고려는 이미 13세기 중엽부터 몽골과 화친하고 혼인을 맺어 긴밀하게 결속했으므로 요양행성과 직접 접촉·교류한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따라서 그때 양국 관계에서 요양행성의 역할은 양자 간 소통을 매개하는 교통로·중개지 정도로 한정되었다. 다만 고려가 요양행성에 요청하여 전란·기근으로 인해 요동으로 끌려가거나 이주한 본국인을 쇄환하고, 洪重喜·奇轍이 사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행성 고관이라는 지위를 배경으로 고려를 압박한 사례가 확인된다.<sup>5)</sup>

14세기 중엽 몽골은 치열한 권력투쟁에 따른 정치의 혼란과 홍건군의 봉기로 인해 점차 쇠퇴했다. 자연스럽게 요동 즉 요양행성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이완했다. 고려 공민왕은 홍건군 토벌을 위해 파견되었다가 귀환한 무장의 보고를 듣고 몽골의 쇠퇴상을 감지했다. 이에 1356년 대대적인 反元정책을 개시하면서 印璫과 柳仁雨로 하여금 각각 압록강 서쪽 8站과 동북면 쌍성총관부를 공격하게 했다. 8참은 義州에서 遼陽을 잇는 구간에 놓인 8개 역참으로 일찍이 양국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로로 활용되었다. 특히 몽골은 이를 고려와 소통하면서 한편으로 고려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 인당은 군사를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 婆娑府 등 3참을 공파했다. 고려가 그곳에 점령군을 주둔시키거나 주변 지역을 경략하지 않고 곧바로 귀환한 점에 비추어 역참을 탈취하거나 그 지역을 점령하려 기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역참을 철저히 파괴함으로써 양국 간 통교를 차단하여 반원정책 소식이 몽골에 전달되지 않게 하고, 교통로를 통한 몽골의 견제에서 벗어나려는 목적으로 감행한 것으로 이해된다. 기철 차단 직후 “이때 나라에서 서북지역에 장수를 보내 元의 침공에 대비하고, 봄·가을에 공물을 바치면서 羈縻하는 것이 이미 오래되어 소통이 거의 두절되었다”라는 기록도 8참 공격의 목적이 양국 간 교통의 단절에 있음을 뒷받침한다.<sup>6)</sup>

서북방 8참 공략과 동시에 동북면으로 쌍성총관부 정벌이 단행되었다. 그곳은 본래 고려 영토로서 몽골·여진의 활동 영역과 접하는 군사적 요충지다. 양국 전쟁 막바지인 1258년 토호 趙暉·卓靑이 그 지역을 몽골에 헌납하면서 투항했다. 몽골은 즉시 그곳에 쌍성총관부를 설치하여 직할령으로 삼고 이후 100여 년간 고려를 압박·견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 더욱이 14세기 중엽에는 趙小生·卓都卿을 위시한 상당수 쌍성총관부 지휘관이 기철과 연계되었다. 공민왕은 반원정책의 일환으로 쌍성총관부를 공략하여 옛 영토를 수복하고, 고려에 대한 몽골의 통

5) 원대 요양행성과 고려의 관계에 관해 오기승, 2018, 「원대 요동 여원(麗元) 접경에서의 요양행성 역할 고찰」, 『역사와 현실』 107쪽 참조.

6) 『高麗史』 卷131 奇勲.

제력을 약화하며, 기철의 친당을 일소하려 했다. 전술했듯이 당시 몽골은 내부 혼란을 수습하는 데 진력하느라 고려의 군사활동을 방어·응징할 만한 여력이 없었다. 따라서 사건 직후 고려가 몽골에 사신을 보내 8참과 쌍성총관부에 대한 기습·점령을 교묘하게 해명하자, 몽골은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써 고려는 요동의 혼란을 틈타 동·서북면으로 몽골을 선제공격하여 양국 소통과 고려 통제 수단을 제거하고 옛 강역을 회복했다.

고려는 쌍성총관부를 공략하는 과정에서 동북면으로 영토를 확대했다. 『高麗史』 「趙暉傳」에 고려가 쌍성총관부를 공파하고 점령한 지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이로써 地圖에 의거하여 和州, 登州, 定州, 長州, 預州, 高州, 文州, 宜州와 宣德鎮, 元興鎮, 寧仁鎮, 耀德鎮, 靜邊鎮을 수복했다. 무릇 咸州 이북의 哈蘭, 洪獻, 三撒 지역은 본래 우리 강역이었는데 趙暉 등이 배반하여 元에 빼앗긴 지 99년 만에 이제 모두 수복했다.7)

일찍이 몽골은 고려 동북면에 쌍성총관부를 설치해 위 기사의 和州~靜邊鎮 지역을 관할하고, 그 북방에 哈蘭府를 두어 咸州 이북을 다스렸다. 위 인용문에 따르면, 고려는 동북면을 공략하면서 쌍성총관부뿐 아니라 합란부 통치 구역까지 점령했다. 본래 함주 이북은 고려의 영토가 아니었다. 그런데 12세기 초 여진과 영토분쟁을 벌이면서 1107년 尹瓘이 이끄는 고려군이 그 지역을 점령하고 동북 9성을 설치했다. 이후 여진과 교섭하여 1109년 그곳을 여진에게 반환했다. 윗글에서 그 지역이 본래 우리 강역이었다는 서술은 동북 9성이 존재한 2년간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쌍성총관부 설치 이전 그곳은 고려 영토가 아니었다. 따라서 고려가 쌍성총관부를 공략하면서 합란부까지 점령했다는 것은 옛 강역을 수복했을 뿐 아니라 함주 이북을 새롭게 영토로 편입했음을 의미한다.8) 그뿐 아니라 고려는

7) 『高麗史』 卷111 趙暉.

8) 이정진, 2004, 「쌍성총관부의 설립과 그 성격」, 『한국사학보』 18, 279~288쪽. 그때 丁臣桂가 이끄

다음과 같이 서북면으로도 여진을 공략하여 영토를 확대했다.

林土, 碧團은 본래 모두 여진의 거주지였다. 공민왕 6년(1357) 泥城萬戶 金進 등을 보내 그들을 공격해 쫓아내고 林土를 陰瀆으로 바꾸고 碧團을 그곳에 예속시키고 남쪽 사람들을 뽑아 그곳으로 보냈다.<sup>9)</sup>

공민왕 11년(1362) 12월 고려는 壽春君 李壽山을 동북면 都巡問使로 임명해 여진과 경계를 정하게 했다.<sup>10)</sup> 이는 그동안 동북면으로 강역을 확대한 고려가 여진과 교섭을 통해 새롭게 획득한 지역을 자국의 영토로 확정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sup>11)</sup>

14세기 중엽 홍건군이 요동으로 진출하고 고려에 두 차례 침입했다. 고려가 그들을 국경 밖으로 축출하고, 요동에서 고가노가 그 잔당을 소탕하여 홍건군의 위협을 제거했다. 그 결과 요동에 대한 몽골이 통제력이 거의 사라지고 여러 자립 세력이 할거하는 국면이 연출되었다. 고려는 홍건군 격퇴 후 항시 요동의 형세를 감시·정탐했다. 그리고 방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고려·여진인의 귀부를 수용하고 그들에게 국경방어 임무를 부여했다. 당시 요동에는 몽골의 제왕·무장·관료, 여진 부족, 쌍성총관부에서 도주한 조소생·탁도경 등 언제라도 고려를 공격할 만한 위협 세력이 도처에 존재했다. 이에 고려는 국경 방어체계를 강화하고 그들이 침략했을 때 강경하게 대처했다.

---

는 고려군이 새 영토의 북쪽 경계인 伊板嶺을 지나 여진과 싸워 크게 승리하기도 했다(『高麗史節要』 卷26 공민왕 5년 9월). 공민왕 6년(1357) 8월 고려 都堂에서 征東行省에 보낸 문서에 “雙城·三撒 등지는 본래 우리 영토로서 북쪽으로 伊板을 경계로 삼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다(『高麗史』 卷39 공민왕 6년 8월 戊午).

9) 『高麗史』 卷58 地理12 北界 泥城府.

10) 『高麗史』 卷40 공민왕 11년 12월 癸未.

11) 쌍성총관부를 포함한 고려의 동북면이 요동에 포함되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요동의 범위는 시기와 상황에 따라 일정하지 않아 경계를 명확하게 정하기 어렵다. 다만 쌍성총관부 탈환과 동북면 영토 확장이 요동을 향한 군사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므로 요동 정책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역사상 요동의 개념과 범위에 관해 김한규, 2004, 『요동사』, 문학과지성사, 49~61쪽 참조.

홍건군 격퇴 직후인 공민왕 11년(1362) 2월 조소생·탁도경이 나하추와 연합해 동북면을 침공하자, 고려는 李成桂를 보내 그들을 격퇴했다.<sup>12)</sup> 또한 13년(1364) 정월 몽골이 德興君을 고려 국왕으로 세우기 위해 요양행성에서 파견한 호송군이 서북면으로 침입하자, 고려는 최영·이성계로 하여금 그들을 격퇴하게 했다. 동시기 여진인 三善·三介가 동북면으로 침입하여 순식간에 和州 이북 지역을 석권하자, 고려는 서북면에 주둔하던 이성계를 동북면으로 투입하여 그들을 격파하고 영토를 탈환했다. 이는 그간 고려의 영토 확장으로 인해 거주지에서 쫓겨난 여진인이 원한을 표출하고 본거지를 되찾기 위해 벌인 군사활동으로 이해된다.

洪武 원년(1368) 8월 명이 몽골을 초원으로 구축하고 중원을 제패했다. 이에 북에 인접한 요동의 형세가 크게 동요했다. 당시 요동에 여러 몽골 세력과 토착 부족이 각지에서 세력권을 형성하고 할거해 있었다. 요동 전역을 통합할 만한 거대 세력이 존재하지 않았고, 명도 山西·陝西·甘肅에서 北元과 전투하느라 요동으로 진출하지 못했다. 그러한 상황에서 1370년 고려가 두 차례 동녕부를 정벌했다. 동녕부는 1269년 崔坦·李延齡 등이 西京을 위시한 고려 서북지역을 몽골에 바치며 투항하자, 다음 해(1270) 몽골이 그곳을 직할령으로 삼아 설치한 통치기구다. 이후 고려가 능동적으로 몽골과 교섭하여 1290년 그 지역을 돌려받았으나, 행정기관은 요양으로 치소를 옮겨 요양행성 휘하에서 형식적으로 존속했다. “至元 6년(1269) 李延齡 등이 그 땅을 바치고 귀부했다. 이후 城의 통치가 무너지고 그 이름만 간신히 남아 東寧路에 배속되었다”라는 기사에 그 실태가 잘 드러난다.<sup>13)</sup>

14세기 말 원·명이 교체되고 요동이 동요하는 시점에서 고려는 왜 동녕부를

12) 이규철은 나하추가 고려와 연계를 통해 명군의 공격에 대비하거나 자체 방어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고려를 침략한 것은 요동에 대한 고려의 적극적인 군사활동에 대한 반발 때문이라고 보았다(이규철, 2016, 앞의 논문, 82~85쪽).

13) 『元史』 卷59 地理2 遼陽等處行中書省 東寧路, 1399쪽. 東寧府는 至元 12년(1275) 東寧路로 승격되었다. 오기승은 몽골이 동녕부를 실질적으로 폐기했음에도 그 기구·형식을 남겨둔 이유에 관해 필요에 따라 이를 곧장 실질적인 것으로 전환하여 처음 설치 지역이었던 고려 서북방이나 고려 자체를 제압·통제하기 위한 카드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추정했다(오기승, 2014, 앞의 논문, 102~104쪽).

정벌했을까? 그 이유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복원과 단절하는 것이다. 『高麗史』 「世家」 공민왕 18년(1369) 11월 기사에 “가을 이후 동·서북면 요충지에 萬戶·千戶를 많이 배치하고 元帥를 보내 東寧府를 공격하여 北元과 단절하려 했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sup>14)</sup> 이는 동녕부 정벌의 근본 목적이 복원과 단절이었음을 명확하게 나타낸다. 고려가 몽골의 北走와 명의 大都 입성 소식을 접한 시기는 그다음 달인 공민왕 17년(1368) 9월이다. 명과 복원이 극렬하게 대치하는 현실에서 고려는 양국 모두와 통교하는 양면적 외교방침을 채택했다. 따라서 복원과 여전히 사신을 교환하고, 한편으로 명과 우호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했다.<sup>15)</sup> 그러나 다음 해(1369) 4월 洪武帝가 사신 使斯를 보내 친서·선물과 함께 화친의 뜻을 전하자, 고려는 5월 복원의 至正 연호 사용을 금지하고, 11월 카안의 조서를 갖고 온 복원 사신을 살해하며, 다음 해(1370) 7월 명의 洪武 연호를 사용하면서 점차 親明反元 노선으로 기울어졌다. 이는 고려가 사신 교환을 통해 명의 국력을 확인하고, 초원과 화북 곳곳에서 명군이 복원군을 격퇴했다는 정보를 접하고 내린 판단이었을 것이다.

그 시기 동녕부의 치소는 요양성이다. 13·14세기 요양은 고려와 대도·상도를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였다. 당시 복원 조정이 상도-응창에 위치했으므로 요양은 여전히 고려와 복원을 매개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존재했다. 또한 그때 요양성에서 동녕부를 장악하고 있던 인물은 기사인테무르(奇賽因帖木兒)다. 그는 몽골 황실의 외척으로 조정이 초원으로 퇴각할 때 요동에서 기병 5천을 이끌고 와서 토곤테무르를 알현하여 그에 대한 충심을 내보였다.<sup>16)</sup> 그러므로 고려가 복원과 철저히 단절하기 위해서는 양국을 잇는 교통의 거점이자 복원과 긴밀하게 연계된

14) 『高麗史』 卷41 공민왕 18년 11월.

15) 공민왕 17년(1368) 10월 고려가 判宗簿寺事 文天式을 복원에 보내 千秋節을 축하하게 했는데, 그가 요양까지 갔다가 길이 막혀 되돌아오자 장형에 처한 후 다시 보냈다. 이는 고려가 복원과 통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음을 보여준다. 이어 11월 禮儀判書 張子溫을 보내 吳王을 예방하게 했다(『高麗史』 공민왕 17년 10월 癸酉; 11월 丁未). 오왕의 정체에 관해 논란이 있으나 주원장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이에 관해 박원호, 2005, 「高麗와 朱元璋의 첫 交涉에 관한 小考」, 『북방사논총』 3; 권용철, 2023, 「『고려사』에 기록된 吳王에 대한 재검토」, 『한국사학보』 93 참조.

16) 『北巡私記』 至正 28년 8월 초3일.

기사인테무르가 주둔하는 요양성을 정벌할 필요가 있었다.

둘째, 기사인테무르의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다. 고려가 동녕부 정벌 기간과 그 후 요동의 군벌·주민, 명에 보낸 문서에 공히 기사인테무르의 악행·위협이 정벌의 궁극적 이유로 명시되어 있다. 복원 시기 요동에 여러 몽골 세력이 할거했으나 누구도 패권을 장악하고 명에 대적할 만한 군사력을 갖추지 못했다. 이에 그들은 동맹 세력을 구하기 위해 각자 고려에 접근하여 우호 관계를 맺고자 노력했다. 그러한 현실에서 고려에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동녕부의 기사인테무르였다. 그는 기철의 아들이자 기황후의 조카로 고려가 그 일족을 처단할 때 몽골에 있어 화를 면했다. 따라서 그가 고려에 큰 원한을 갖고 적대적 자세를 취했음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일찍이 기사인테무르는 元에 입사하여 平章이 되었고 원이 망한 후 遼瀋의 관리 平章 金伯顔 등과 함께 東寧府에 응거하면서 그 아버지 奇翰이 주살된 것에 원한을 품고 고려 변방을 침략하려 했다”라는 기록도 이를 뒷받침한다.<sup>17)</sup> 당시 그는 요양에서 동녕부를 장악하고 요·심 지역의 여러 고려 유민과 토착민을 규합하여 상당한 세력을 형성했다. 이에 고려는 요동의 유일한 위협 세력인 기사인테무르를 제거하여 변방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sup>18)</sup>

동녕부 정벌은 공민왕 19년(1370) 정월과 11월 두 차례 단행되었다. 1차 정벌에서 이성계가 기병 5천, 보병 1만을 거느리고 동북면에서 진군하여 동녕부 휘하의 兀刺山城을 함락했다. 그 결과 東寧府 同知 이오로테무르(李吾魯帖木兒)를 사로잡고 주변 여러 성의 투항을 받아 1만여 민호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1차 정벌은 차후 동녕부의 본거지인 요동성을 효과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 성격이 강하다. 정벌 직후 여진 만호 弓大가 부족민을 이끌고 귀부하고, 몽골 군벌 나하추와 諸王 카라바투(哈刺八秀), 에센부카(也先不花), 吳王, 淮王이 앞다퉈 사신을 보내 특산물을 바쳤다. 이는 올라산성 정벌이 주변 몽골 세력과 토착 부족에게

17) 『高麗史』 卷114 池龍壽.

18) 오기승은 기사인테무르가 복원의 지지를 받아 瀋王 王嵩의 손자 독토부카(篤朵不花)를 고려 국왕으로 옹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민왕이 이를 왕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여 정벌을 단행했다고 보았다(오기승, 2012, 앞의 논문, 297~303쪽).

상당한 위세를 떨쳤음을 시사한다. 2차 정벌에서는 池龍壽·李成桂가 군대를 이끌고 서북면에서 출격하여 요양성을 함락했다. 비록 기사인테무르를 놓쳤으나 부장 김바얀(金伯顔)을 사로잡고 인근 여러 성을 위무하고 돌아왔다.<sup>19)</sup>

앞서 언급했듯이 두 번에 걸친 동녕부 정벌의 목적은 요동을 향한 영토 확장이 아니라 복원과 연계를 끊고 기사인테무르의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다. 고려는 격렬하게 요동치는 국제정세 속에서 안보·실리를 위해 복원과 통교를 완전히 끊지 않음으로써 첫 번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sup>20)</sup> 그러나 요양에서 기사인테무르의 세력 기반을 철저히 파괴하고 요·심 지역의 수많은 고려 유민을 흡수하여 그의 세력 회복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변방의 위협을 성공적으로 제거했다.

이처럼 고려는 14세기 중엽 몽골이 정쟁·반란으로 쇠퇴하자 동·서북면으로 요동을 선제공격하여 몽골의 간섭·통제에서 벗어나고, 舊土를 회복하며, 새롭게 영토를 확장했다. 이후 요동의 몽골 세력과 토착 부족의 침입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두 차례 동녕부를 정벌하는 적극적인 군사활동을 펼쳐 변방의 안정을 확보했다.

#### IV. 고려와 요동 몽골 세력 간 교류

14세기 후반 고려는 요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군사활동을 펼치면서, 한편으로 몽골의 할거 세력과 활발하게 교류하는 외교정책을 추진했다. 1356년 공민왕의 반원정책 후 1371년 명의 요동 진출 때까지 여러 요동의 몽골 세력이 고려에 사신을 보내 통교했다. 『高麗史』 「世家」에 기록된 사례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 19) 기사인테무르는 동녕부에서 도주한 후 요동 곳곳을 전전하다가 1374년 興中에서 明軍에게 사로잡혔다(『秘閣元龜政要』 卷9 洪武 7년 夏4월).
  - 20) 공민왕 18년(1369) 5월 至正 연호 사용 금지 후 8월 복원의 中書省과 太尉丞相 奇平章의 사신이 고려를 예방하고, 다음 해(1370) 7월 洪武 연호 사용 후 9월 복원 승상 쿠케테무르(廓擴帖木兒)가 보낸 사신이 고려를 방문했다. 『高麗史』 공민왕 22년(1373) 2월 乙亥條에 복원이 사신을 보내 명을 공격하기 위한 군사협력을 요청했는데, 공민왕이 사신을 처형하려 했으나 신료들이 반대하여 석방해 돌려보냈다는 기사가 있다. 이는 고려가 복원과 완전히 단절할 수 없었던 사정을 잘 보여 준다.

[표] 요동 몽골 세력의 고려에 대한 遣使

시기(공민왕)	주체	목적
10년(1361) 04월	高家奴	옥술잔과 개 바침
11년(1362) 04월	高家奴	홍건군 잔당 격파 소식 전달
11년(1362) 05월	高家奴	지원군 요청
11년(1362) 12월	高家奴	양 4마리 바치고 처녀 요청
15년(1366) 08월	高家奴	새매를 바침
15년(1366) 10월	淮王	양 120마리 바침
16년(1367) 03월	洪寶寶, 於山帖木兒	공민왕 예방
16년(1367) 10월	納哈出	말을 바침
17년(1368) 정월	洪寶寶, 哈刺不花	명의 군세가 강하니 힘써 방어할 것을 요청
17년(1368) 07월	於山帖木兒	공민왕 예방
17년(1368) 09월	洪寶寶	공민왕 예방
18년(1369) 정월	納哈出, 洪寶寶	공민왕 예방
18년(1369) 09월	吳王, 淮王, 雙哈達王	말 40여 필 바침. 왕실 혼인 요청
18년(1369) 11월	納哈出	말을 바침
19년(1370) 02월	納哈出	특산물 바치고 관직과 허리며 구함
19년(1370) 03월	哈刺不花, 也先不花	공민왕 예방
19년(1370) 03월	吳王, 淮王	특산물 바침
19년(1370) 12월	納哈出	공민왕 예방
20년(1371) 윤3월	劉益, 王右丞	요양 주민의 이주에 관해 의사 타진
20년(1371) 05월	劉益, 王右丞, 和尚院使	공민왕 생일 축하
20년(1371) 05월	吳王	공민왕 예방
20년(1371) 07월	高家奴, 王右丞	공민왕 예방

위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가장 먼저 고려에 사신을 보내 교류한 인물은 요양행성 관료 고가노다. 그의 접근은 홍건군의 고려 침입·격퇴와 관련이 있다. 1359·1361년 두 차례 홍건군이 고려를 침략했다. 고가노는 2차 침입 직전인 공민왕 10년(1361) 4월 고려에 사신을 보내 옥술잔과 개를 바치면서 통교를 시도했다. 이는 그의 향후 군사활동에 비춰볼 때 고려와 연합하여 홍건군을 협공하기

위해 포석을 놓으려 한 것으로 이해된다. 다음해(1362) 정월 고려가 홍건군을 압록강 밖으로 축출하자, 4월 고가노가 그 잔당을 격파하고 고려에 승전보를 전한 후 5월 지원병을 요청했다. 고려와 고가노가 차례로 홍건군과 싸워 승리했으나 요동에서 그 잔당을 완전히 소탕하지 못했다. 이에 8월 고려가 요양행성에 사신을 보내 홍건군의 상황을 정탐하게 했다. 그 직후 몽골이 고려에 의복과 술을 내리면서 홍건군 격퇴의 공로를 표창하고, 고가노와 함께 蓋州·海州에 남아 있는 잔당을 협공하라고 지시했다. 고려가 군대 편성을 마치고 출정하려 했으나 적이 궤멸했다는 소식을 듣고 중단했다. 이로써 고려와 고가노의 군사협력은 성사되지 못했다. 요동에서 홍건군이 일소되었음에도 12월 고가노는 재차 고려에 사신을 보내 양 4마리를 바치고 처녀를 요청했다.

이처럼 그가 적극적으로 고려와 화친을 맺으려 한 것은 고려의 군사력을 높게 평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는 요동 세력 중 가장 가까이에서 고려군이 두 차례 홍건군을 격퇴하는 활약상을 목도했다. 몽골은 고려의 승리를 크게 치하하고, 고려도 몽골과 교섭할 때 다음과 같이 그 공적을 적극 내세웠다.

근자에 紅賊이 上都를 침범해 궁궐을 더럽히고 遼省을 공파하며 각지를 분탕질했습니다. 山東의 적들이 바닷길로 와서 그들과 합세하니 그 기세가 더욱 강성해졌습니다. 기해년(1359) 봄, 우리 사신이 새해를 축하하고 돌아오다가 모두 살해되었습니다. 그해 겨울 平壤을 침구한 적도를 즉시 섬멸하고, 신축년(1361) 겨울 沙劉·關先生 등 10여 만 무리가 다시 왔을 때 성을 비움으로써 유인하여 마침내 사로잡았습니다. 蓋州·海州로 도주한 잔당이 다시 날뛰지 못한 것은 우리나라의 힘 때문입니다. 사방에서 도적이 봉기한 지 10여 년이 지나도 아직 평정되지 못했는데, 우리를 침범한 도적은 4~5년간 완전히 소탕되었습니다. 이로써 천자께서 동방을 걱정하지 않고, 조정이 먼 곳을 토벌하러 수고하지 않았으니, 우리 왕의 공이 여러 장수보다 못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sup>21)</sup>

21) 『高麗史』 卷40 공민왕 12년 4월 甲寅.

그러므로 고가노가 고려의 강한 군사력을 실감하고, 요동에 여러 군벌이 할거하는 상황에서 고려를 동맹 세력으로 확보하여 안위 보장과 세력 확대를 추구한 것으로 여겨진다. 고려도 홍건군의 침입을 겪은 후 국경방어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요동의 몽골 세력과 협력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그의 접근에 관대하게 응하여 처녀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전 中郎將 金光徽의 딸을 보냈다.<sup>22)</sup> 이처럼 양자는 홍건군의 고려 침입·격퇴를 계기로 우호 관계를 맺었다.

공민왕 11년(1362) 12월 이후 고가노는 한동안 고려에 사신을 보내지 않았다. 1363~1364년 몽골이 요양행성 군대 1만을 동원해 공민왕을 폐위하고 덕흥군을 새 국왕으로 세우려 했다가 실패하는 사건이 있었다. 홍건군 격퇴 후 공을 인정받아 요양행성 평장에 임명된 고가노가 양국이 무력 충돌하고 요양행성이 깊이 연루된 상황에서 사적으로 고려에 사신을 파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결국 그의 사신 파견은 15년(1366) 8월 재개되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17년(1368) 8월 명이 대도에 입성할 때까지 2년간 고가노뿐 아니라 淮王, 洪寶寶, 에센테무르(於山帖木兒), 나하추, 카라부카(哈刺不花) 등 여러 몽골 세력이 고려에 사신을 보내 화친을 구했다. 특히 나하추는 11년(1362) 2월 고려를 침략했다가 이성계에게 대패한 후 그의 용맹함을 인정하여 공민왕과 이성계에게 선물을 보내고 예를 표한 적이 있다.<sup>23)</sup> 그 역시 고가노와 마찬가지로 고려의 강력한 군사력을 실감하고 태도를 전환하여 동맹을 맺으려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때 여러 몽골 세력이 고려에 접근한 것은 몽골의 쇠퇴와 朱元璋의 성장에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다. 당시 몽골은 카안, 황후, 황태자, 중앙·지방의 여러 관료·무장이 치열하게 권력투쟁을 벌이면서 급속히 쇠퇴했다.<sup>24)</sup> 한편 강남에서는 주원장이 여러 한인 군웅을 차례로 제압하고 1357년 최후 저항 세력인 張士誠·方國珍을 토벌하여 강남을 확고히 장악했다. 그리고 황제에 즉위하기 전인 그해

22) 『高麗史』 卷40 공민왕 11년 12월 癸巳.

23) 『高麗史』 卷40 공민왕 11년 7월.

24) 14세기 후반 몽골 조정의 권력투쟁과 정치적 혼란에 관해 권용철, 2019, 『원대 중후기 정치사 연구』, 온샘, 359~391쪽 참조.

10월 北伐을 개시하여 파죽지세로 북상했다.<sup>25)</sup> 몽골 조정과 중원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던 요동의 제 세력은 분명 그러한 현실을 위협적으로 인식했을 것이다. 공민왕 17년(1368) 정월 홍보보와 카라부카가 고려에 사신을 보내 명의 군세가 강성하니 방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는데, 그때 이미 북벌군은 山東을 평정하고 大都에 육박했다. 그런 점에서 1366년부터 요동의 여러 몽골 세력이 고려와 통교한 목적은 원·명 교체 대세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서 각자 고려와 동맹하여 안위를 보전하고 군사 역량을 확대하는 데 있다고 여겨진다. 고려가 그들의 접근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알기 어렵다. 적어도 사신 파견을 거부하지 않았으므로 우호적 자세를 취하고, 이를 통해 변경의 안정과 요동 제 세력 간 균형 유지를 도모했으리라 추정된다.

洪武 원년(1368) 8월 명이 몽골을 초원으로 구축하고 중원을 평정했다. 그때부터 4년(1371) 7월 요양에 定遼都衛를 설치해 요동으로 진출할 때까지 3년간 여전히 많은 몽골 세력이 고려와 통교했다. 이때에는 앞서 거명한 인물 외에 吳王, 雙哈達王, 카라바투(哈刺八剌), 에센부카(也先不花) 등이 처음 고려에 사신을 보냈다. 당시 몽골 세력은 초원으로 물러난 북원의 직접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않았으나, 대체로 카안의 형식적 종주권을 인정하면서 명을 적대시하고 그들의 요동 진입을 극도로 경계했다. 따라서 그들이 고려에 접근한 목적은 명의 요동 진입이 예상되는 현실에서 고려와 동맹하여 방어 역량과 명을 협공하기 위한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고 여겨진다.

그 시기 명도 요동 진출을 도모하면서 몽골 세력을 토벌하는 데 고려의 협력을 기대했다. 이에 공민왕 19년(1370) 5월 고려에 조서를 보내 다음과 같이 요동 제 세력과의 전투에 대비하여 군사력과 방어체계를 증강하라고 지시했다.

지금 몽골의 운이 이미 다했으나 변방의 백성을 일시에 통치할 수 없고, 짐의 군사가 遼·瀋에 이르지 않아 그사이 혹여 포악한 자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들이

25) 주원장의 강남 평정과 북벌에 관해 오함, 박원호 옮김, 2003, 『주원장전』, 지식산업사, 159~208쪽 참조.

중국의 우환은 아니지만 고려를 침략할까 우려된다. 하물며 왜적이 바다 섬을 출입한 지 10여 년이 되었으니 왕의 허실을 어찌 모르겠는가? 이 모든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왕이 그들과 대적할 경우, 걸출한 장수와 용맹한 군사가 아니면 나라 밖 먼 곳에서 싸울 수 없을 것이다. 왕이 그들을 막으려 할 경우, 깊은 해자, 높은 보루, 충분한 비축물자가 없으면 사방에 지원군이 있어도 적의 예봉을 꺾고 사로잡지 못할 것이다. 이로써 본다면, 왕의 책무가 매우 중대하니, 지혜로운 자는 우환을 미연에 방지하고 위기를 안전으로 바꾸는 법이다.<sup>26)</sup>

이처럼 여러 몽골 세력과 명이 앞다퉈 고려에 사신을 보내 통교한 것은 머지않아 요동을 차지하기 위한 상호 투쟁의 불가피함을 직시하고 고려를 동맹 세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경쟁했음을 나타낸다. 전술했듯이 몽골 퇴각 후 고려는 북원·명과 모두 교류하다가 공민왕 18년(1369) 4월 명 사신 설사의 내빙 후 점차 친명반원 노선으로 기울어졌다. 그럼에도 여전히 요동의 몽골 세력과 활발히 교류하고 그들을 후하게 대우했다. 그해(1369) 9월 오왕·희왕이 고려에 사신을 보내 왕실 혼인을 요청하자, 10월 고려는 그 사신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佛像을 하사했으며, 오왕에게 侍中 金逸逢의 딸을 시집보내고 희왕의 딸을 데려오게 했다. 또한 다음 해(1370) 2월 나하추가 고려에 사신을 보내 관직과 황금 8냥으로 허리띠를 구하자, 고려는 그에게 三重大匡·司徒 관직을 제수하고, 모시 베 두 필과 金帶를 내리면서 황금을 돌려보내는 호의를 베풀었다.

이 같은 고려의 대응은 격동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외교정책을 구사하여 안전과 실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명 건국 이전 고려는 몽골에 事大 자세를 취하면서 한편으로 장사성·방국진 등 反蒙 기치를 내걸고 거병한 한인 군웅과 활발히 교류했다.<sup>27)</sup> 고려가 친명 외교방침을 채택한 후 명을 적대시하는 요동의 몽골 세력과 긴밀하게 교류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이처럼 고려는 원·명 교체 혼란기 명, 북원, 요동의 몽골 세력 사이에서 중립적

26) 『高麗史』 卷42 공민왕 19년 5월 甲寅.

27) 김혜원, 1998, 「高麗 恭愍王代 對外政策과 漢人群雄」, 『백산학보』 51.

자세를 취하고, 그들 모두와 통교하는 외교정책을 펼쳐 요동에서 제 세력 간 균형을 유지하고 북변의 안위를 보전했다.

## V. 맺음말

건국 후 몽골은 점차 동방으로 세력을 확대하여 13세기 말 요양행성을 설치하고 요동을 확고히 장악했다. 14세기부터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요동에 대한 통제력이 이완되어, 민생이 피폐해지고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14세기 중엽 홍건군이 봉기하고 요동으로 진입해 각지를 점령했다. 그들은 두 차례 고려를 침공했으나 실패하여 수많은 병력을 상실하고 몽골군에게 진압되었다. 그 후 요동에 홍건군 진압에 공을 세운 여러 몽골의 제왕·무장·관료가 각자 세력권을 형성하고 할거했다. 1368년 명이 몽골을 초원으로 구축하자, 그들은 복원과 연계하면서 명의 요동 진출에 적극 대항했다.

고려는 장기간 요양행성과 국경을 접했으나 몽골 조정과 긴밀하게 결속했으므로 요양행성과 거의 교류하지 않았다. 14세기 중엽 몽골이 쇠퇴하자, 공민왕은 반원정책을 단행하면서 서북면으로 8참을 공파하여 몽골과 연계를 끊고, 동북면으로 쌍성총관부를 점령하여 구토를 회복했다. 나아가 적극적인 군사활동을 통해 새롭게 영토를 확대했다. 이후 국경방어 체계를 확립하고 요동의 몽골 군벌, 토착 부족이 침략했을 때 강경하게 대응했다. 아울러 명이 요동에 진출하기 전 두 차례 동녕부를 정벌하여 기사인테무르의 위협을 제거하고 변방의 안정을 확보했다.

고려는 요동에 대해 적극적인 군사활동을 펼치면서, 한편으로 여러 몽골의 자립 세력과 활발히 교류했다. 그들은 홍건군을 토벌하고 내부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고려의 협력을 필요로 했다. 이후 명이 중원을 장악하고 요동으로 진출하려 시도하자, 그들은 방어 역량을 강화하고 명을 협공하기 위해 고려와 동맹하려 했다. 이에 경쟁적으로 고려에 사신을 보내 화친을 구했다. 고려도 격동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명의 동진을 견제하고 요동에서 제 세력 간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

었다. 따라서 그들 모두와 우호적으로 교류함으로써 북변의 안위를 보전했다.

1371년 명이 요양에 정료도위를 설치하여 본격적으로 요동에 진출하자, 요동의 형세가 크게 전변했다. 그때 고려는 새롭게 등장한 거대 세력 명을 상대하고, 복원, 여러 군벌과 관계를 설정하는 방향에 따라 요동 정책을 전면 개편할 수밖에 없었다. 그 시기 고려 요동 정책의 내용·성격·성과에 관해 후고에서 상세히 다루어보려 한다.

## 참고문헌

- 『高麗史』(鄭麟趾 編, 1975, 亞細亞文化社)  
『高麗史節要』(金宗瑞 編, 1981, 亞細亞文化社)  
『北巡私記』(劉佑 撰, 1972, 史料四編, 廣文書局)  
『秘閣元龜政要』(2001, 二函十六冊, 北京圖書館出版社)  
『遼東志』(任洛等 纂修, 孫倩 點校, 2016, 科學出版社)  
『元史』(宋濂 編, 1976, 中華書局)  
『危學士全集』(危素 撰, 四庫全書本)
- 권용철, 2019 『원대 중후기 정치사 연구』, 온샘  
김한규, 2004, 『요동사』, 문학과지성사  
오함, 박원호 옮김, 2003, 『주원장전』, 지식산업사  
樂凡, 2019, 『北元史』(邢正 主編), 中國社會科學出版社  
薛磊, 2012, 『元代東北統治研究』, 社會科學文獻出版社  
叢佩遠, 1998, 『中國東北史(第三卷)』(佟冬 主編), 吉林文史出版社
- 권용철, 2023, 「『고려사』에 기록된 吳王에 대한 재검토」, 『한국사학보』 93  
김혜원, 1998, 「高麗 恭愍王代 對外政策과 漢人群雄」, 『백산학보』 51  
박돈, 1985, 「高麗末 東寧府征伐에 대하여」, 『중앙사론』 4  
박원호, 2005, 「高麗와 朱元璋의 첫 交渉에 관한 小考」, 『북방사논총』 3  
신안식, 2016, 「고려후기의 영토분쟁: 쌍성총관부와 동녕부를 중심으로」, 『군사』 99  
오기승, 2012, 「공민왕대 동녕부 전역(戰役) 고찰」, 『군사연구』 134  
오기승, 2014, 「高麗末 東寧府의 形態 變遷과 高麗 流移民」, 『역사민속학』 46  
오기승, 2018, 「원대 요동 여원(麗元) 접경에서의 요양행성 역할 고찰」, 『역사와 현실』  
107  
오기승, 2021, 「공민왕 5년(1356) 여원 접경지대 분쟁과 쌍성총관부 수복」, 『승실사학』  
46  
이규철, 2016, 「공민왕대 대외정벌 정책의 추진과 시행」, 『역사와 실학』 59  
이정신, 2004, 「쌍성총관부의 설립과 그 성격」, 『한국사학보』 18  
杜洪濤, 「元明之際遼東의 豪強集團與社會變遷」, 『史林』 2016-1  
張士尊, 「元末紅巾軍遼東活動考」, 『吉林師範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1996-2

■ Abstract ■

## Navigating Power Shifts

: Goryeo's Liaodong Policy before the Ming's Expansion

Koh Myung-soo (Chungnam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Goryeo's political and military strategies in Liaodong during the mid-14<sup>th</sup> century, prior to the Ming dynasty's eastward expansion. Following the uprising of the Red Turban Army, Goryeo faced multiple threats but successfully navigated these challenges and the shifting regional dynamics that followed. Although the army invaded Goryeo twice, it was defeated, suffering significant losses to the Mongols. The paper unveils how, in the aftermath, several Mongol princes, commanders, and officials who contributed to suppressing the Red Turban Army established independent spheres of influence in Liaodong.

The research also explores how King Gongmin's anti-Yuan policy shaped Goryeo's efforts to sever ties with the Mongols and reassert control over key territories. The research further explores the strategies Goryeo used to attack the eight post stations in the northwest to recapture the Ssangseong Commandery (쌍성총관부) in the northeast. Gongmin's campaigns against the Dongnyeong Commandery (동녕부) demonstrated how these expeditions neutralized the threats posted by Kisain Temur and stabilized the frontier. Through an investigation of these strategies adopted during Ming dynasties consolidation of power and advance into Liaodong in 1368, the paper shows how the Goryeo strategically maintained relations with these warlords to contain the Ming's influence and preserve a balance of power in the region.

Key words: Goryeo, Mongol, Liaodong, Ming Dynasty, Ssangseong Commandery, Dongnyeong Commandery